

농촌마을 공동체의식 측정을 위한 설문항목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지달님* · 임승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그동안 공동체의식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공동체의식에 관하여 일반화된 정의가 없으며, 공동체의식을 측정할만한 설문항목 역시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일부 진행된 연구의 경우도 측정단위에 따라 설문항목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McMillan 등의 선행연구자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수준과 그 영향 요인 등을 밝히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구성원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Chavis and Wandersman, 1986)을 인식할 때, 농촌지역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정부의 농촌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노령화, 생활환경의 악화가 중첩되면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주공간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주민을 떠나게 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장택주, 1998). 그동안 농촌 계획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공동체의식 수준의 악화를 가져오는 근원이 되었으며, 공동체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촌마을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후된 농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거주가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어떤 요인들이 공동체의식의 함양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농촌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할 때 공동체의식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공동체의식 측정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공동체의식 측정 관련 연구는 McMillan and Chavis의 공동체의식의 개념인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력(Influence), 만족감(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유대(Shared emotional connection)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활동 참여, 주민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김경준과 김성주(1998)).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공동체 특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거주기간, 이사계획, 연령층,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공동체의식 수준이 달라짐을 파악하였다(천현숙(200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인의 공동체의식 관련요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지역 간의 공동체의식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주민들 간의 관계 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이영하, 2005).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측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공동체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파악하였다(성희자와 전보경(2006)). 도시의 근린환경에서 공동체의식의 결정요인으로 애착, 자부심, 정체성, 상호교류를 제시하였다(최열과 공윤경(2008)).

2. 공동체의식을 고려한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공동체의식을 고려한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들은 도시의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요소와 공동체의식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안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외부공간의 커뮤니티 행위 장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소속감 및 정서적 유대 등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장소를 타입별로 분

류하고 모임행위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지원요소를 제시하였다(민병호, 200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반사적 영역 계획에 관하여 도시의 저층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 접근성 등의 물리적 요소에 의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변희협과 심우갑, 1988).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을 분석하고 커뮤니티시설과 활동프로그램을 고찰함으로써 외부 공간계획방법을 제안하였다(신연호와 김원필, 2008).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인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 마을을 구성하는 이주민의 구성 비율 등의 요인에 의하여 가구수가 통제된 각 2개의 농촌마을을 선택하였다.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라서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를 대상지로 선택하였고, 이주민¹⁾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는 강원도 평창군 상창봉리, 강원도 평창읍 내지리를 대상지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총 4개의 농촌마을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자연휴양림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의 정의 및 개념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애착심, 소속감, 자부심, 정서적 유대, 마을의 정체성 등의 대분류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대분류를 근거로 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설문을 통하여 총 10개의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문문항을 실제 농촌마을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이 높은 항목의 도출하고 농촌마을지원사업, 이주민의 구성비율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공동체의식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IV. 연구 결과

1. 설문항목 도출

기존 연구의 공동체의식 측정관련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설문항목 리스트를 만들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대학원생 35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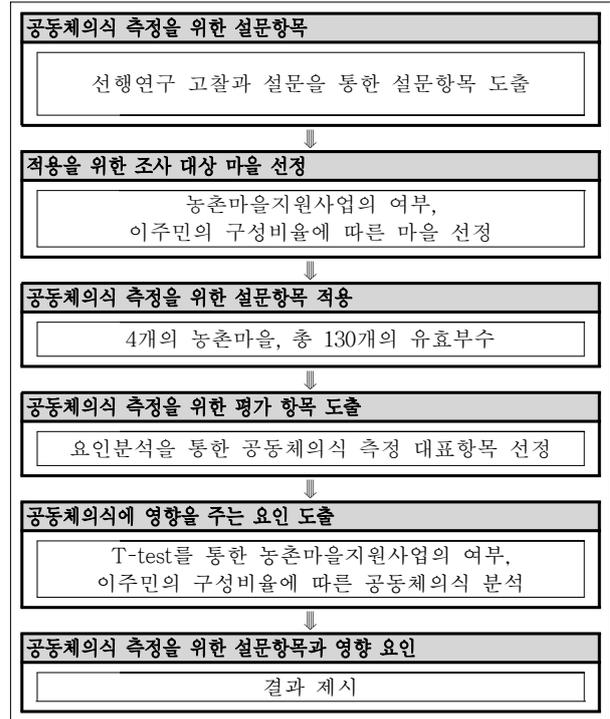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과정

대상으로 설문하여 빈도수가 20이상인 상위 10개의 설문항목을 농촌마을 공동체의식 측정을 위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2. 농촌마을의 공동체의식 측정 설문적용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거주민)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연휴양림 거주민이 인식하는 공동체의식 요인분석

도출된 설문문항 중에서 5점 척도로 응답이 가능한 애착의 정도,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자부심, 정체성, 공동공간의 이용 빈도,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 이웃과의 교류 정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8개의 항목에 대하여 총 4개의 마을에서 설문한 130개의 유효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공통성(communality)의 값이 0.50보다 작은 두 개의 요인(정체성, 주거환경)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애착의 정도, 자부심은 내적요인으로서 전반적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나타내는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애착의 정도를 대표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웃과의 교류 정도, 공동 공간의 이용 빈도,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는 외적 요인으로서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를 나타내는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이웃과의 교류 정도를 대표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송암리	고탄리	상창봉리	내지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46.9%)	18(54.5%)	13(39.4%)	14(43.8%)
	여	17(53.1%)	15(45.5%)	20(60.6%)	18(56.2%)
	계	32(100%)	33(100%)	33(100%)	32(100%)
연령	40대 미만	-	2(6.1%)	-	2(6.3%)
	40대	3(9.4%)	5(15.2%)	5(15.2%)	6(18.8%)
	50대	7(21.9%)	6(18.2%)	7(21.2%)	11(34.3%)
	60대	11(34.4%)	4(12.1%)	6(18.2%)	2(6.3%)
	70대 이상	11(34.4%)	16(48.5%)	15(45.4%)	11(25.0%)
	계	32(100%)	33(100%)	33(100%)	32(100%)
	거주기간	2년 미만	-	-	2(6.1%)
2년 이상~5년 미만		2(6.3%)	-	-	3(9.4%)
5년 이상~10년 미만		-	2(6.1%)	6(18.2%)	10(31.3%)
10년 이상~20년 미만		1(3.1%)	2(6.1%)	2(6.1%)	5(15.6%)
20년 이상		29(90.6%)	29(87.9%)	23(69.7%)	12(17.5%)
계		32(100%)	33(100%)	33(100%)	32(100%)
직업	농업	29(90.6%)	27(81.8%)	29(87.9%)	23(71.9%)
	상업	1(3.1%)	-	2(6.1%)	4(12.6%)
	공무원	1(3.1%)	-	-	-
	회사원	-	-	1(3.1%)	4(12.6%)
	주부	1(3.1%)	-	1(3.1%)	-
	기타	-	6(18.2%)	-	1(3.1%)
	계	32(100%)	33(100%)	33(100%)	32(100%)

표 2. 거주민이 인식하는 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그룹	요인	성분	
		1	2
애착심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0.869	0.119
	애착의 정도	0.789	0.140
	자부심	0.787	0.296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	이웃과의 교류 정도	0.149	0.858
	공동공간의 이용빈도	0.117	0.810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	0.458	0.608

3)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분석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른 마을 간의 공동체의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개의 항목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여 각 항목 간의 유의 확률을 살펴보았다. 각 항목 간의 평균값의 비교에 있어서는 5개의 항목에서 농촌마을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암리의 평균값이 높았지만

표 3. 농촌마을지원사업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

항목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				
	송암리	고탄리	T-test		
	평균	평균	t	자유도	유의확률
애착의 정도	4.48	4.56	-0.475	63	0.446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4.27	4.06	0.191		0.780
자부심	4.27	4.09	0.045		0.840
공동공간의 이용빈도	2.85	2.13	-0.212		0.896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	4.45	3.94	0.737		0.000
이웃과의 교류 정도	3.85	3.66	-0.538		0.603

표 4. 농촌마을사업의 여부에 따른 이웃과 만나는 장소와 공동공간 이용목적의 차이

항목	구분	농촌마을사업의 여부	
		송암리	고탄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웃과 만나는 장소	서로의 집	3(9.4%)	4(12.1%)
	공동공간(마을회관, 노인정)	6(18.8%)	6(18.2%)
	마을 내의 길가	3(9.4%)	5(15.2%)
	작업장(밭, 논 등)	17(53.1%)	16(48.5%)
	기타(시장 등)	1(3.1%)	1(3.0%)
	교류장소 없음	2(6.3%)	1(3.0%)
	계	32(100%)	33(100%)
공동공간 이용목적	친목도모	10(31.3%)	13(39.4%)
	회의 및 행사 참석	13(40.6%)	10(30.3%)
	기타 소모임	6(18.8%)	2(6.3%)
	이용하지 않음	3(9.4%)	8(24.2%)
	계	32(100%)	33(100%)

T-test 분석 결과 1개의 항목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을 가지는 대표항목인 애착의 정도와 이웃과의 교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마을지원사업 여부에 따라 이웃과 만나는 장소와 공동공간의 이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웃과 만나는 장소에 있어서는 작업장, 공동공간의 순으로 두 마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공동공간의 이용목적에 있어서는 순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었다.

4)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분석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마을 간의 공동체의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개의 항목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 간의 평균값의 비교에 있어서는 5개의 항목에서 이주민의 구성비율이 낮은 상창봉리의 평균값이 높았지만 T-test 분석 결과 4개의 항목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을 가지는 대표항목인 애착의 정도와 이웃과의 교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라 이웃과 만나는 장소와 공동공간의 이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웃과 만나는 장소에 있어서는 이주민의 구성비율이 낮은 상

표 5.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

항목	이주민의 구성비율				
	상창봉리	내지리	T-test		
	평균	평균	t	자유도	유의확률
애착의 정도	4.79	4.56	1.431	63	0.012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4.27	4.06	0.665		0.820
자부심	4.27	4.09	0.569		0.556
공동공간의 이용빈도	2.85	2.13	0.521		0.000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	4.45	1.70	2.855		0.013
이웃과의 교류 정도	3.94	3.84	1.369		0.037

표 6.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이웃과 만나는 장소 및 공동공간의 이용목적

항목	구분	이주민의 구성비율	
		상창봉리	내지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웃과 만나는 장소	서로의 집	5(15.1%)	9(28.1%)
	공동공간(마을회관, 노인정)	7(21.1%)	5(15.6%)
	마을 내의 길가	11(33.3%)	6(18.8%)
	작업장(밭, 논 등)	5(15.2%)	3(9.4%)
	기타(시장 등)	2(6.1%)	1(3.1%)
	교류장소 없음	3(9.1%)	8(25%)
	계	33(100%)	32(100%)
공동공간 이용목적	친목도모	16(48.5%)	11(34.4%)
	회의 및 행사 참석	13(39.4%)	14(43.8%)
	기타 소모임	0(0%)	0(%)
	이용하지 않음	4(12.1%)	7(21.9%)
	계	33(100%)	32(100%)

표 7. 마을 내 토착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

항목	토착민	이주민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평균			
애착의 정도	4.94	4.13	-3.508	30	0.000
이사 시 섭섭함의 정도	4.53	3.53	-2.377		0.024
자부심	4.59	3.53	-2.521		0.017
이웃과의 교류 정도	4.29	2.93	-2.543		0.016
공동공간 이용빈도	2.41	1.80	-1.418		0.167
행사 및 마을회의 참석 정도	4.59	3.20	-2.487		0.019

창봉리는 마을 내의 길가, 공동공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주민의 구성비율이 높은 내지리는 서로의 집, 교류장소 없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공간의 이용목적에 있어서는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상위 2개의 항목이 친목도모와 회의 및 행사참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5) 마을 내 토착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 차이 분석

내지리의 경우, 마을의 구성원 중에서 이주민의 비율이 57.7%로 토착민과 이주민의 구성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토착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내지리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6개의 항목에서 토착민의 평균값이 높았지만 T-test 분석 결과 5개의 항목에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을 가지는 대표항목인 애착의 정도와 이웃과의 교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토착민과 이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고찰

선행 연구의 공동체의식 관련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애착심, 소속감, 정서적 유대, 자부심, 만족감, 정체성 등의 대분류 항목에 따라 설문항목을 작성하고, 설문을 통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문항목을 4개 마을에 적용하여 총 130개의 유효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6개의 설문항목에 있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 그룹은 전반적인 마을의 애착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한 그룹은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애착의 정도와 이웃과의 교류 정도를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설명력이 높은 대표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를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애착의 정도, 자부심, 공동공간의 이용빈도, 회의 및 행사 참석 정도, 이웃과의 교류 정도에 대하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애착의 정도와 이웃과의 교류 정도는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설명력이 높은 대표항목으로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내지리의 경우 토착민과 이주민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토착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애착의 정도, 이사의 시의 섭섭함의 정도, 자부심, 이웃과의 교류 정도, 공동공간의 이용빈도, 행사 및 마을회의 참석 정도에 대하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가구수, 농촌마을지원사업의 여부, 이주민의 구성비율 등을 제외한 다른 공동체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내 통과교통의 유무, 마을회관의 접근성, 재배작물 등의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주 1. 본래 이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마을에 정착한지 10년 미만인 사람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용문헌

1. 김경준, 김성주(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
2. 민병호, 염승준, 이지옥, 이종민(2006) 공동주택 외부공간 중 커뮤니티 행위 장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 39-47.
3. 변희협, 심우갑(1988) 근린의식 향상을 위한 반사적 영역위 계획에 관한 연구: 도시 저층 집합 주거 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 199-202.
4. 성희자, 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1): 149-170.
5. 신연호, 김원필(2008) 단지내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5): 185-192.
6. 이영하(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8(1): 231-254.
7. 장택주(1994) 지역주민의 집회활동과 활동장소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8): 69-75.
8. 정연옥(1999) 근린공용시설을 이용한 지역 커뮤니티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2): 307-312.
9. 천현숙(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 연구.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
10. 최월, 공윤경(2008)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주민인식 및 결정요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3(2): 193-20.
11. Chavis, D. M., Hogge, J. H., McMillan, D. W., and Wandersman, A.(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c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24-40.